

신입생 세미나 '무대서기'



신입생 세미나의 일환인 '무대서기' 수업은 1학년(혹은 2학기 이내 수강자)만 1회에 한해 신청 가능한 S/U 평가 방식의 수업이다. 수업 정원은 10~15명으로 기초교육원에서 개설한 신입생을 위한 맞춤형 수업이라 할 수 있다.

신입생 세미나는 교수와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신입생들의 전공과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대학생활 적응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2005년 도입됐다. 담당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강의내용·방식·시간 등이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 1학기에는 56개가 개설되었다.

이번 학기에 개설된 신입생 세미나 중 단연 눈에 띄는 수업은 올해 처음 시도된 영어영문학과 변창구 선생님의 '무대서기'이다. e-mail 인터뷰를 통해 선발된 15명의 신입생들이 희곡과 연극에 대해 공부하고 직접 작품을 선택해 이를 무대에 올리는 것이 수업의 골자이다.

‘무대서기’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 5월 2일 두레문예관 무대에 작품을 올렸다. 이 무대를 기자가 직접 관람했으며, 이들이 공연한 작품은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안톤 체호프의 단막극 〈결혼 피로연〉이었다.

체호프의 〈결혼 피로연〉은 평범하고 속된 사람들이 모인 피로연에서의 해프닝을 그려낸 작품이다.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저마다의 이익을 앞세우며 신랑감과 장모는 지참금을 놓고 다투고, 셋째 딸의 결혼식에 돈을 주고 장군님을 초대함으로써 평범한 자신들의 지위가 ‘장군님’과 같아지기를 열망한다.

그러나 뒤늦게 나타나 자기의 해군 시절 추억을 실 새 없이 떠들어 분위기를 망쳐 놓은 ‘장군님’이 사실은 어찌다 오게 된 퇴역 중령이고, 중개인이 그에게 주어야 할 돈을 가로챘다는 것이 밝혀지며 피로연은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만다. 그 엉망이 되고 만 순간에 작품은 완전히 끝이 난다. 어려울 수 있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작품이다. 참가 학생들 대부분은 연극을 처음 해 보는 초보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전 과정을 훌륭히 소화해냈다. 공연 직전 만나 뵈는 변창구 선생님과 신입생들의 연출 및 연기를 지도해준 마정화 선생님은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모습에 깜짝 놀랐으며 학생들의 능동적인 태도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작품 선정, 배역 및 스태프 선정, 연기 및 배역 해석 연습, 의상, 무대 디자인, 팸플릿 제작, 기획 및 홍보 절차, 공연, 평가 등 무대 공연 전체를 학생들이 직접 준비했다고 한다. 관람하러 가서 본 배우들의 분장이나 의상, 무대 등도 공들인 티가 역력했다. 15명의 학생들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작품에 고루 참여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이 연극에 장모님(나스파시아) 역으로 참여한 류수빈(사회과학대·08) 학생은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어 좋았고, 연극이 연기 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것들을 세심하게 다루고 점검해야 하는 복잡하지만 재미있는 일이라는 걸 배웠다”고 말하면서 수강을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연극의 매력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잊지 않고 덧붙였다.

새내기들만의 특권인 신입생 세미나, ‘무대서기’ 처럼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 신입생 세미나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는다.

● 글 : 이명지 / 사진 : 서유경

